

새 생명의 기쁨을

너는 사랑들

WINTER

2020 Vol. 81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2020년 11월 29일 발행

발행인 신희영

편집책임 이양화

편집 장진호, 지수희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TEL 02-737-5533

FAX 02-737-5336, 7

E-mail kmdp@kmdp.or.kr

홈페이지 www.kmdp.or.kr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사랑들

협회장 인사말

전문가 칼럼

- 2 기증자보호위원회, 기증자의 귀하고 소중한 마음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유철주 교수

사랑을 나눕니다

- 6 당신께 흔치 않은 이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기증자 백경윤
- 8 환자분이 건강하기만을 바랐습니다
- 기증자 조나단
- 10 누군가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 기증자 추혜인

항상 고맙습니다

- 14 불행 속에서 만난 유일하고 가장 특별한 행운
- 수혜자 김재승 님(가명)
- 16 기증자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희망
- 수혜자 이지안 님(가명)
- 18 따뜻한 마음과 건강한 세포로 웃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 수혜자 장영숙 님(가명)

현장 story

- 22 산타클로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배선영 코디네이터
- 24 2020년 제19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 26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27 한마음혈액원과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 28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30 [KMDP 기자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x메디컬매버릭스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 알기 프로젝트

좋은 소식 전합니다

- 34 KMDP NEWS
- 36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 37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에서는
- 38 역대 기증자 명단
- 40 Q&A :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모든 것!
- 43 혈액암 환자 응원 프로젝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46 함께 나누는 분들
- 47 2020년 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48 개인정보 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따뜻한 마음과 나누어 주시는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건강·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보다는 나를 우선하고 이웃보다는 가족을 챙기게 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그 어떠한 희생보다도 숭고하며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느덧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5,600여 명의 혈액암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으며, 37만여 명의 기증희망자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후원사 및 후원자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혈액암 환자 지원 사업에도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2020년 제19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이 비대면 행사로 전환되어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 등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생명나눔의 실천은 부족함이 없었으며, 환자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는 진심어린 마음의 소리는 '희망 나눔메시지'에 담겨 이식환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히크만 주머니는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임직원 모두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나누어 주시는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일과 가정에 행운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신희영 신 희 영





기증자보호위원회, 기증자의 귀하고 소중한 마음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유철주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연세암센터
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장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가장 소중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어려운 치료 과정인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때는 환자의 안위를 제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간과되면 안 되는 것이 있으며, 이는 바로 기증자의 안전입니다. 가족, 형제간의 기증자 아니면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기증자라도 이 분들의 안전과 건강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3살 예진(가명)이는 혈액 세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 받았습니다.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빈혈이 심해졌고, 주기적으로 적혈구 수혈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감소증으로 잦은 감염이 생겼고, 혈소판이 감소되어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자주 나는 등 출혈로 인하여 혈소판 수혈 횟수

가 잦아 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궁극적인 치료는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가능한 비혈연 기증자를 찾던 중 다행히 1명의 적합한 타인 기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고혈압이 발견되었고, 확장기 혈압이 170mmHg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기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증자의 혈압이 높아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될 수 있기에 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진이의 치료를 위해 담당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으나, 기증자의 안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증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기증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부터 우연히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촉진제 주사(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말초혈액으로 이동시켜주는 약제, G-CSF) 투여 시 혹은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도중에도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혈모세포 수득을 주로 골수에서 채취하였기에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한 골수 채취를 하고 난 후에 엉치뼈 부위가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말초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촉진제 주사를 3~5일간 맞아야 하는데 이로 인한 피부 발진, 발열, 뼈 통증, 관절통 그리고 두통

이 드물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4~5시간동안 혈액을 성분분리장치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저칼슘증에 의한 저림 증세, 혈소판 저하로 인한 지혈 지연 등의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며 기증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2012년 6월부터 기증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증자 적격성 판정 권고안』을 수립, 조혈모세포 기증 적격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증자의 귀하고 소중한 마음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자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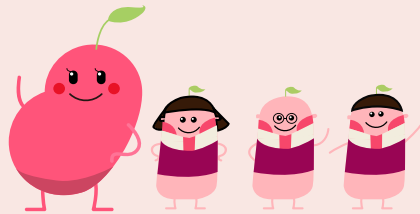
사랑을 나눕니다.

기증자 인터뷰

기증자 백경윤 님

기증자 조나단 님

기증자 추혜인 님



당신께 흔치 않은 이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기증자 백경윤 님



안녕하세요 :)

저는 소아청소년과레지던트수련중인 백경윤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가을 축제 시즌이었는데요, '내가 이 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축제구나!' 라는 감상에 젖어서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고 있다가 조혈모세포기증을 소개하는 부스와 마주했어요.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시기라 의학과 관련된 것들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오...! 예전에는 골수 기증이었는데, 이제는 헌혈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살릴 수도 있다니!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하곤 혈액 샘플링 하시라고 제 팔을 내밀었던 기억이 나네요.

조혈모세포 기증 연락을 받았을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2013년 10월에 신청했었고, 첫 일치 연락은 2018년 가을에 연락을 받았으니, 5년만에 연락 받았는데요. '오!!!!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랑 유전자형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대박사건~!' 정말 깜짝 놀랐던 것만 기억나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첫 기증 연락을 받았을 당시엔 졸업하고 인턴생활중이었기에 아주 잠깐이지만 실제로 혈액암 환자와 그 가족 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증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기증 1달 전 진행하는 다양한 검사도 받았어요.

그러나 얼마 뒤, 환자분이 기증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조혈모세포기증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지요. 그 후로 1년이 지났고, 저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되어, 혈액종양파트 주치의의를 하고 나서는, 비혈연간의 조혈모세포기증의 중요성에 대해 좀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조혈모세포기증이 혈액암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식이라는 게 자신의 것을 모두 억제 시킨 후 타인의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항암제를 투약하고, 이식 받은 후에도 면역력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야해요. 그런데 2019년 겨울, 다시 한번 저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계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이 힘들게 버텨온 시간을 마무리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심했을 때, 주변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2018년에도, 2019년에도 부모님과 저의 최측근들은 처음엔 말렸지만, 이내 제 결정을 존중 해주셨어요.

조혈모세포 기증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증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기증 전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고, 꼬박꼬박 촉진제 주사를 맞고, 그라신 부작용으로 가벼운 요통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두통, 보행 시 골반통, 미열까지 그 전에 없었던 몸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과(그런데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어요!), 기증 전 후 2박 3일 및 조혈모세포채집을 위한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중심정맥관의 경우는 모든 기증자가 삽입하는 것은 아니고, 말초혈관으로 채집이 충분히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심정맥관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많이 불안 했었지만, 다행히 통증 이외에는 탈이 없었고, 그날 저녁에 조혈모세포채집이 잘 되었다고 연락 받은 후 바로 뽑았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좋았던 점이 더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참 잘한 일'을 제가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점차 제 자신이 기특하더라고요. 평소 주치의로 환자를 만나고 치료하는 것도 보람된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리고 짧은 입원기간 동안 제가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 통증, 불편함이 제가 앞으로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혈모세포 기증 후, 이에 대해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가, 기증 날이 다가올수록 막연히 두렵고, 제가 원래 겁쟁이라서 '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별별 떨었는데, 다 끝나니 생각보다 쉬워서 '뭘 이렇게 걱정했나?' 싶었어요!

조혈모세포 이식 수혜자분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수혜자님, 힘내라는 말, 그간 수도없이 들어서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찾아올 일상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군인들 이용하셔서 나쁜 바이러스, 세균들 다 이겨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막연한 두려움으로 기증을 망설이고 계세요.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되는데 당연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하더라도요! 작은 용기를 내고, 짧은 불편한 시간만 감수한다면 후에는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그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잠깐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마음 한구석에는 한번도 뵈지 못한 수혜자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따뜻함이 자리할 수 있어요. 당신께 흔치 않은 이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환자분이 건강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기증자 조나단 님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아프길 바라는 소방교 조나단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2017년, 헌혈 순서를 기다리던 중에 벽에 붙어 있던 조혈모세포 기증 포스터를 보고서 헌혈하는 김에 신청했습니다. 기증 신청 전에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2017년 여름에 기증신청을 했었는데, 그 해 연말에 한 번, 그리고 작년 겨울까지 합해 두 번이나 일치 연락을 받은 터라 이번에는 꼭 기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자분이 건강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처음 연락받던 당시에도 환자가 아기라고 들었고,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를 기증한다고 해서 내가 아픈 것도 아니니 당연히 하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출동이 아닌 나 개인으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크기도 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힘들었던 점은 환자의 컨디션과 병원 스케줄을 우선적으로 내 스케줄에 맞추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업무 특성상 불시에 비상상황이 생길수도 있고, 다른 사정 등으로 인해 혹여나 기증하는 데에 있어 제 일정 때문에 환자가 곤란해지진 않을까가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식받으신 환자분 가족에게서 감사하다는 손편지를 받았을 때 제일 기분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해 드린 것이 없는데도 환자분께는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니 오히려 제가 더 기뻐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혜자분께 응원의 한 마디 해주세요.

발병 후, 긴 시간을 혼자서 싸워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혼자 아님, 저도 수혜자님 안에서 함께 싸울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혜자님과 저, 그리고 가족들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이 싸움의 끝에는 결국 승리만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완치하는 그 날까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막연한 두려움으로 기증을

망설이고 계세요. 격려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옛날의 골수기증방식처럼 무조건 엉덩이뼈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혈하듯 양 팔을 통해서 하는 기증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훨씬 많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영천소방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기증희망자 인터뷰

박성우 님

우연히 조나단 반장의 조혈모세포 기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미있는 이 일에 동참하고자 신청했습니다. 저의 작은 용기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없이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손승현 님

평소에도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은 있었는데 지인이 실제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기증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작은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저 기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이규 님

전설(7세), 전율(4세) 딸램이 아버지 전이규라고 합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증 연락을 받게 된다면 내가 쓰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느끼며 매우 뿌듯할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생명에 직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는 삶이라면 주고받는 입장에서 각자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고마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나단 기증자님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으로 인해 12명의 소방공무원이 조혈모세포 기증서약을 했습니다. 이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감사패를 수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였습니다.

누군가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기증자 추혜인 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 같이 만든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혜인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2005년, 의대 재학 중에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했어요. 수업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중요하다, 환자가 이식 받으려면 그만큼 기증희망자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기증희망등록 부스가 차려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수님과 협회가 일정을 맞춘 거고 계속 진행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스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신청을 했었어요.

조혈모세포 기증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2005년도에 신청했고 올해 기증했으니 15년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제 연락처가 바뀐 적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연락이 왔다는 거에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일치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기증

청을 했는데, 맞는 분이 있어야지만 기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맞는 분이 나타나서 기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실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기다렸던 15년 사이에 가족 중 한 분이 백혈병을 진단 받았어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인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계시기는 하지만 언젠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많이 알려 왔었어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심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위험한게 아니냐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대신 골수기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프지 않겠냐 묻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럴 땐 지금은 헌혈처럼 한다고 이야기해주었죠. 제가 등록했을 당시에는 골수기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협회 소식지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다보니 성분헌혈 방식으로 말초혈관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한다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기증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하고 나서 건강검진 받고 나니 기증하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들었고, 구체적인 기증날짜를 받고 나니 그때는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무사히 그리고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 위해 ‘아프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증 직전까지 몸을 관리했던 시기의 긴장감으로 조금 부담을 느꼈었어요. 이 외에는 크게 힘든 점 없이 직장동료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고, 휴가도 넉넉하게 받아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신데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표하듯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큰 힘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기증 받으시는 수혜자 분께 응원의 한마디해주세요.

기증 전 건강검진 하러 갔을 때 담당 교수님이 인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조혈모세포를 700년을 살 수 있을 만큼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100년치를 기증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600년이 남아 있으니 기증으로 인해 건강에 위해가 생기진 않을 거라고요. 700년 중에 100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값어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도 아닌, 충분히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 분께 저의 700년 중에 100년을 드린 거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

추혜인 기증자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2011년도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코디네이터의 출장 방문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 및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말, 추혜인 기증자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은 은평 지역을 거점으로 둔 의료협동조합으로, 여성주의 건강관을 바탕으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아플 때 서로를 기꺼이 보살피는 평등·평화·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며,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의 힘으로 사람 중심의 의료와 복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마을을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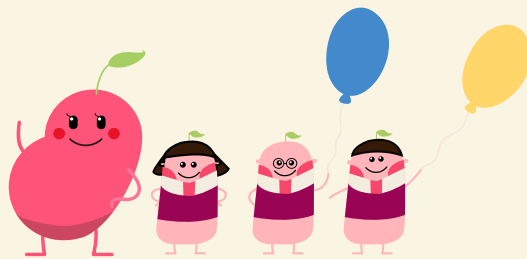
항상 고맙습니다.

환자 수기

수혜자 김재승 님

수혜자 이지안 님

수혜자 장영숙 님





불행 속에서 만난
유일하고 가장 특별한 행운
수혜자 김재승 님(가명)

당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여기 당신의 곱슬머리를 닮은, 당신의 알레르기 비염을 닮아 재채기를 자주 하는,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나눠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생소한 병명에 좌절할 여유도 없이 시작된 6년 여의 투병생활.

그 절망의 터널은 어쩌나 캄캄하고 끝이 안보이게 길던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품에 안긴 작은 아기와 함께 세상을 등지려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기의 몸에 주삿바늘이 파고들 때마다 제 심장도 찢어졌고, 저희 모자는 부둥켜안고
울며 기약 없는 유지 치료를 받는 일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희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당신께서 와 주셨고
당신은 기적처럼 아이의 몸에 꼭 맞게 자리잡아 아이의 일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마움, 이 감사함을 무슨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까요?
당신께서는 제 아이의 생명을 살리셨고,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아이 한 명이 아닌 저희 가족 6명의 삶을 바꿔 주신 겁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건강해진 꼬마 덕분에 저희 가족은 그렇게도 꿈꾸었던,
선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자부심이 당신 삶의 원동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순간 신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질병이라는 불행 속에서 저희 가족이 만난 유일하고 가장 특별한 행운입니다.

올해 **세가 되셨을 *형의 당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나눠 주신 당신은 우리 가족 모두의 은인이십니다.

늘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께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나눌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 고마움, 이 은혜 마음 깊이 간직하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울 당신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기증자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희망

수혜자 이지안 님(가명)

기증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기증자님께서 주신 조혈모세포를 그 해 가을 이식하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저는 덕분에 새 생명을 얻어 그만큼 더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병증과 이식편대숙주반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지만, 저를 버티게 해준 건 가족과 기증자님의 편지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요즘은 아주 조금 좋아졌어요. 기증자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매일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변을 보면 일치자가 많아도 이식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증자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필라테스라는 운동수업도 등록하였습니다. 병원은 2주에 한 번 정도 가고 있고, 가끔 열이 나면 응급실도 가고 입원도 합니다. 올 초에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가 사망선고도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깨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올해 강한 태풍들이 많이 지나갔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몸 건강히 하시고,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편지가 많이 늦어서 죄송해요. 또 기회가 된다면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년 초겨울 어느 날 드림

新年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이식편대숙주반응은 이식한 조혈모세포에 포함된 기증자 측의 림프구가 환자의 몸에 대해 공격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편지는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이식수혜자가 일본의 기증자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로, 일본어로 번역하여 기증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건강한 세포로
웃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수혜자 장영숙 님(가명)

기증자님께 한없는 감사를 느끼는 바입니다.

눈물로 감사드리며
은혜 항상 간직하며
건강관리 잘 하고
꼭 완치하여 보답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건강한 세포로
웃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기증자분께

안녕하세요? 전 수혜자분의 딸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증자분께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멋진 분이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증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선뜻 응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글까지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무사히 이식을 마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꼭꼭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밖에,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이 따뜻한 마음은 그 어딘가에서 닿아서 항상 서로를 응원하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기증자분의 앞날에 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반짝반짝 빛나는 앞날이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분의 딸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희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증자님의 건강한 세포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뿐 아니라 저와 저의 두 아이들에게 아픔을 떨쳐내고 희망과 감사를 안겨준 귀중한 조혈모세포입니다.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허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 기증자님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증자님께 큰 축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수혜자의 딸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분의 손자입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2020/8

수혜자의 손자



현장 STORY

산타클로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팀 배선영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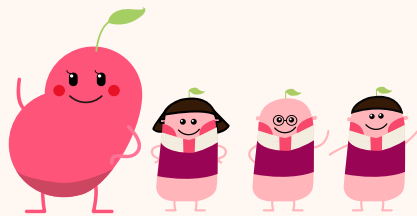
2020년 제19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한마음혈액원과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 오진승

[KMDP 기자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메티컬매버릭스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 알기 프로젝트





산타클로스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배선영 코디네이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 조정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선영 코디네이터입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혈액암 환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비혈연 기증자 간의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소속된 이식조정팀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하신 분 중 수혜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분께 연락을 드려 여러 상담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증의사를 확인하고, 건강 상 안정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검사 등 최종 기증이 진행될 때까지 기증자 분께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증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쾌히 기증 과정을 따라주시고, 수

혜자를 위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주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은 기증자님이 계십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서는 2박3일간의 입원이 필요한데요, 입원하기 3일 전부터 조혈모세포의 수를 증식시켜주는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증자님께 기증을 앞둔 3일 전 즉, 첫 주사 투여일에 기증을 포기해도 그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정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정을 전해 듣고 나니 제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

다. 혈모세포 기증까지 모든 일정을 소화해주셨습니다. 이 분께서 보여주신 수혜자를 위한 헤아릴 수 없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흔들림 없는 기증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날 수 없는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고 결심한 기증자님의 그 굳건한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기증 과정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숭고한 일에 저 역시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서 한 해 약 280~350건 정도의 조혈모세포 기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년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혈액암 환자는 8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으로서, 이식을 요하는 분 중 반 이상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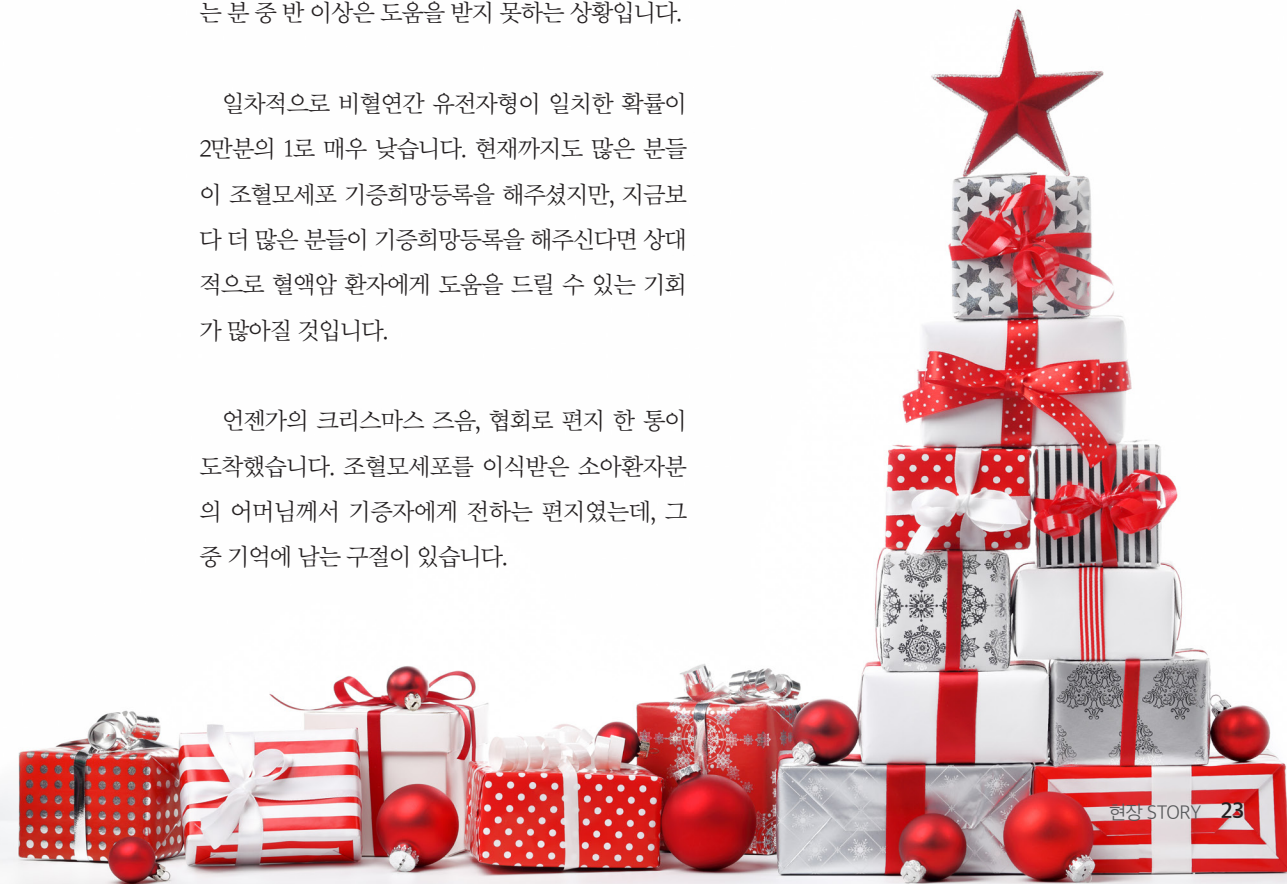
일차적으로 비혈연간 유전자형이 일치한 확률이 2만분의 1로 매우 낮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해주셨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증희망등록을 해주신다면 상대적으로 혈액암 환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언젠가의 크리스마스 즈음, 협회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소아환자분의 어머님께서 기증자에게 전하는 편지였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기적을 전해줄 수 있는 산타클로스가 되어 생명을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2020 제19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은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날』입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이에 맞춰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 대신 기념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조혈모세포 기증자 조나단 님과 최종익 님의 생생한 기증 소감 그리고 두 번의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완치 판정을 앞둔 황승택 님과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선재 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념영상이 공개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영상시청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총 3,268분께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 중, 인상적이었던 시청소감 몇 편을 공개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 김** 님

처음 이런 후원에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관심을 주고 작게나마 후원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셨던 그 분께 우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는 작은 금액의 후원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도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번 감사의 날을 통해 저 또한 뿌듯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시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분들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기증자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수혜자 오** 님

지난 여름에 응급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환자입니다 기증을 받을 때까지와 받은 후에는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치가 회복되면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아가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에게 기증해주신 기증자님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항상 기억합니다. 지금은 아직 어려서 조혈모세포 기증은 못하지만 성인이 되어 할 수 있다면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증받은 것처럼 저도 꼭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증하고 싶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인터뷰를 보니 기증자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기증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김** 님

조혈모세포 기증은 막연하게 '보람되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꺼리는 사람이나 신청 후 기증할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결정을 재고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막연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홍보, 기증자의 건강 등을 포함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의 전 과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로움을 모른 척 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좋은 일을 하려고 수혜자를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기증희망자'에서 여러 과정에 기울이시는 모든 노력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면서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후원하는 '적극적인 기증희망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 영상이었습니다. 더 많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념영상 시청하기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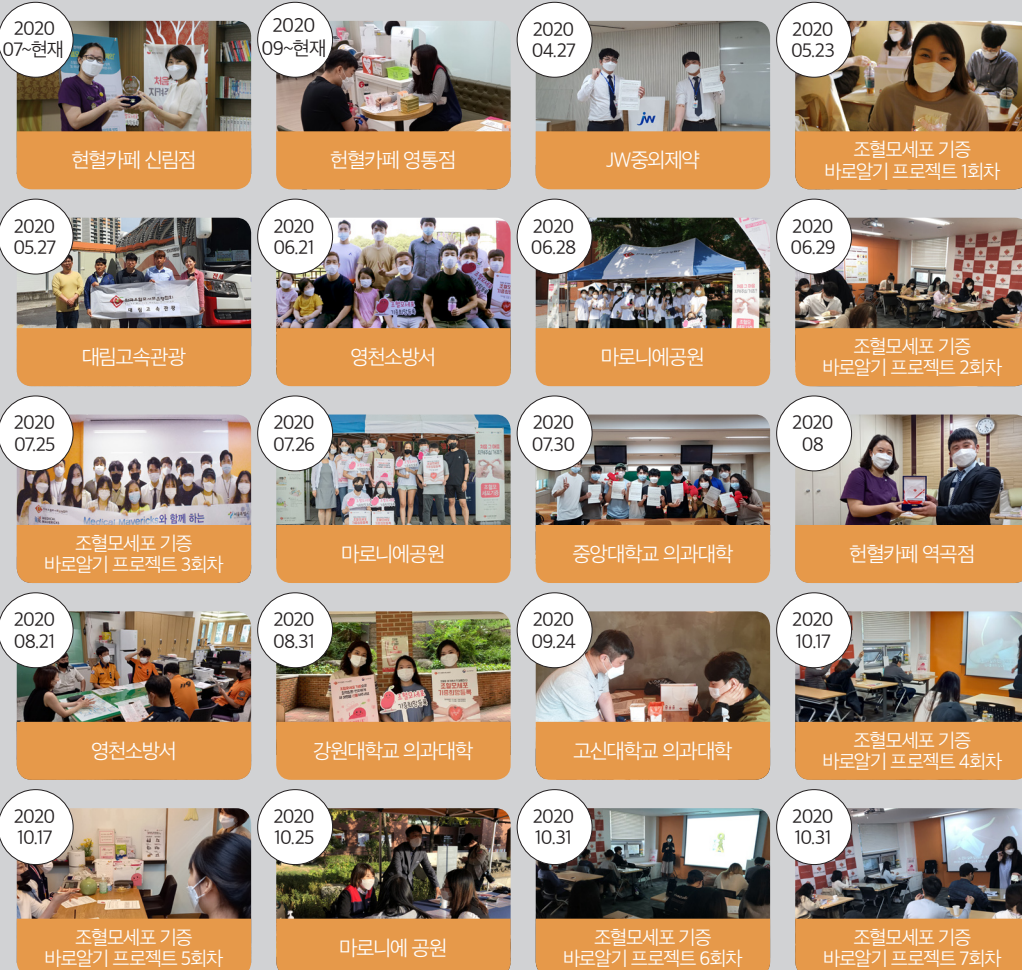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서약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신림점, 영통점, 역곡점, 메디컬 매버릭스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위원(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영천소방서, JW중외제약, 대림고속관광 등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신청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11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2020년 4월 ~ 2020년 10월 활동내용)



한마음 혈액원과 함께 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이하 협회)를 포함한 4개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기관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기관 한마음혈액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7월 1일부터 헌혈카페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현재 신림점과 영통점에서 기증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림점에서 근무하고 계신 송주현 책임 간호사님께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헌혈카페 신림점(사진)과 역곡점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위해 직원이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저희 헌혈카페 신림점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 간혹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도 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협회와 같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헌혈과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도 안내할 수 있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를 해주실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헌혈하면서 혈액샘플만 추가로 채취하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위한 채혈도 같이 완료되는데요. 간혹 지금 바로 혹은 조만간 기증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은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며, 실제 기증은 확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더 이상 권해드리지 못할 때는 아쉽기도 합니다.

기증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여쭙보십니다. 그럴 때는 (문진실) 밖에 있는 협회 담당자분께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겪었던 경험도 같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사촌 중 한 명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적이 있어서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특별한 부작용 없이 기증 전후로 일상생활에 바뀐 점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 드리면 대부분 좋게 생각해주십니다.

벌써 4개월째를 맞이한 헌혈카페 신림점에서의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으로 현재 700여 명께서 생명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힘을 모아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간호사님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음혈액원과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은 연말까지 지속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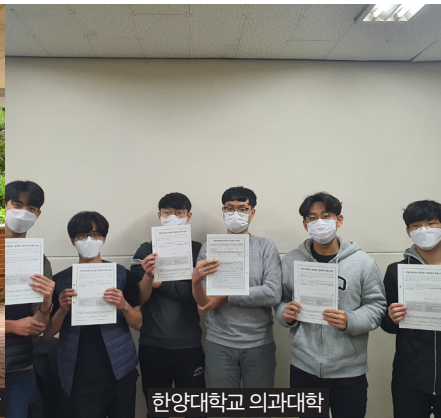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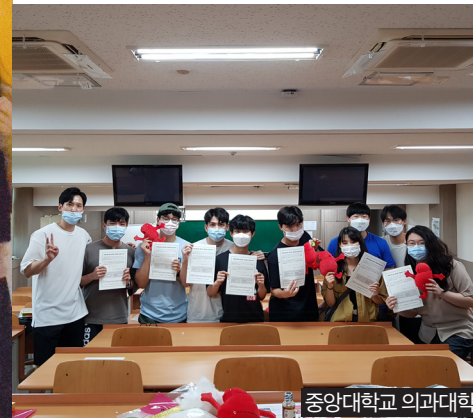
글, 사진 |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닥터프렌즈,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대사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우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하는 올해 초에 비해서는 그와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은 어느정도 진정이 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더욱 힘들어졌으며 비대면 수업으로 반년 넘게 친구들과 선생님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중에 하나인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을 주변에서 보는 일이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답답함과 절망감에 빠져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같이 기본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휴식과 운동과 같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식욕은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질문하는 중요한 정신건강 지표들입니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업무 집중력과 효율을 떨어뜨리고 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수면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피로하게 하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뇌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가 많거나 바쁠 때 우리는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휴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무슨 중간에 휴식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강도가 높거나 운동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정기적이고 꾸준한 운동은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에 도움이 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억누르고 무시한 내 감정을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emo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움직인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혹은 불편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기 보다는 내 진짜 감정을 바라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그에 대한 감정들을 기록하는 감정일기를 쓰는 것이 내 감정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 일상과 감정들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며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한번쯤은 나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X 메디컬 매버릭스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글 KMDP 기자단 민규리

2020년 7월 25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회의실에서 '메디컬 매버릭스와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메디컬 매버릭스는 비임상 진료를 꿈꾸는 의대생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협업을 통해 각종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 매버릭스에서는 각 대학별 의대생 대표를 선발했으며, 대표들이 교내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홍보와 독려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발대식과 조혈모세포 기증 관련 교육 그리고 첫 회의가 이날 이루어졌다. 행사는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발대식 및 추후 홍보활동 논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메디컬 매버릭스는 이번 캠페인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알아보려고 대표 그리고 기획팀장 두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메디컬 매버릭스'는 어떤 단체인가요?

회장 최재호 : 2019년 8월 25일 발족된 단체로, 의대생들 중 비임상(환자를 보지 않는)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돕는 단체입니다.

메디컬 매버릭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회장 최재호 : 의대생들은 학부 특성상 진로가 정형화 되어있고 다른 진로를 희망할 경우 편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아쉬워 바뀌고

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의대생들도 다른 분야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의학적 전문가로서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회장 최재호 : 당장 의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의식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증 독려를 하기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의 협력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획팀장 이선재 : 저는 실제 대기자로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완치가 되었지만, 이러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헌혈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해 정작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보고 싶어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왜 중요한가요?

기획팀장 이선재 :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혈액암 환자의 생존률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에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기획팀장 이선재 : 협회가 현재 하고있는 바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를 강조한 홍보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의대생들이 직접 이를 경험한다면 이들에게도 예비의료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첫 생명 나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회장 최재호 :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면 우리는 잠깐 힘들지만 받는 분들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틀만 고생하면 타인에게 생명이라는 큰 것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선재 : 저는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기자는 기증희망자 한명 한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따라서 그 절실함에 대해 생각하고 신중한 기증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대학별 대표들의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도 이루어졌다. 앞선 인터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증자들은 조혈모세포기증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회의를 통해 콘텐츠 제작, SNS활용,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앞으로 이러한 의견들의 조율을 통해 홍보활동을 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 매버릭스와 각 대표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한다.

* 기사 전문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소식 전합니다

KMDP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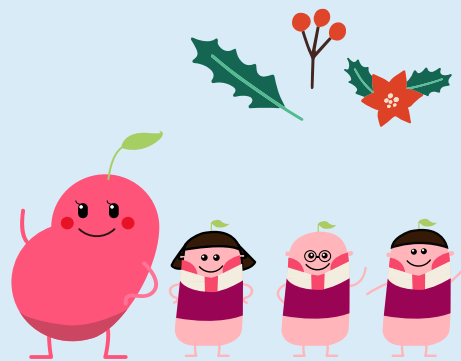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에서는

역대 기증자 명단

Q&A :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모든 것!

혈액암 환자 응원 프로젝트



KMDP NEWS

1

2020년 제19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기념영상 제작 및 시청이벤트



9월 19일,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날을 맞이하여 KMDP에서도 '2020년 제19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기증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영상을 제작하여 보다 많은 분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시청이벤트에 총 3,268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300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선물했습니다. 기념영상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언제나 어디서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대학교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혈모세포 기증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KMDP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원하는 분이 단 한분이라도 직접 찾아뵙고 기증희망등록을 도와드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처음 실시하여 10월 현재까지 270여 명이 신청해주셨고, 기증등록 적합여부 및 일정조율을 통해 180여 명이 등록해주셨습니다.

3

한마음혈액원과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올해 7월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의 협조로 헌혈카페 3개 지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림점과 영통점에서 기증희망등록을 받고 있으며, 역곡점에서는 8월 한 달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신림점과 역곡점에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4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KMDP는 서울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7회로 마무리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및 기증절차 전반을 자세하게 알림으로써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과 기증희망등자 모집, 기증동의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혈액암 환자의 고통을 나누고 돕는 시간도 제공했습니다.

5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투병물품 및 치료비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기부권 사업으로 KMDP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 투병물품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기증자에게서 받는 응원엽서가 담긴 투병물품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으로 KMDP는 앞으로도 혈액암 환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

기증자가 직접 전하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릴레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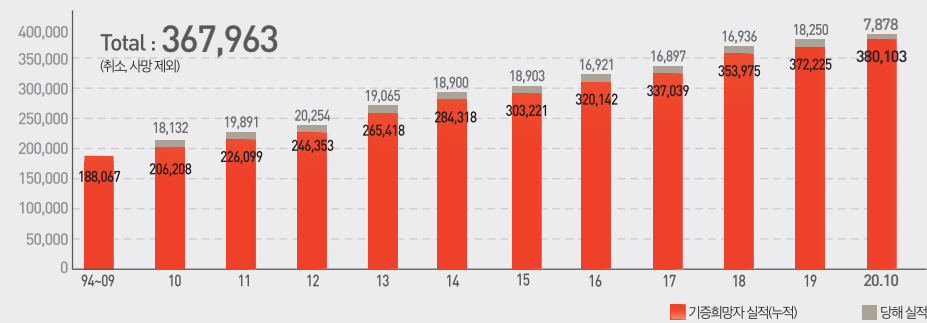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주변 지인에게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을 권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실제 기증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 오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혈액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는 기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소개해 주세요.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모두에게 KMDP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며, 특히 기증자에게는 VMS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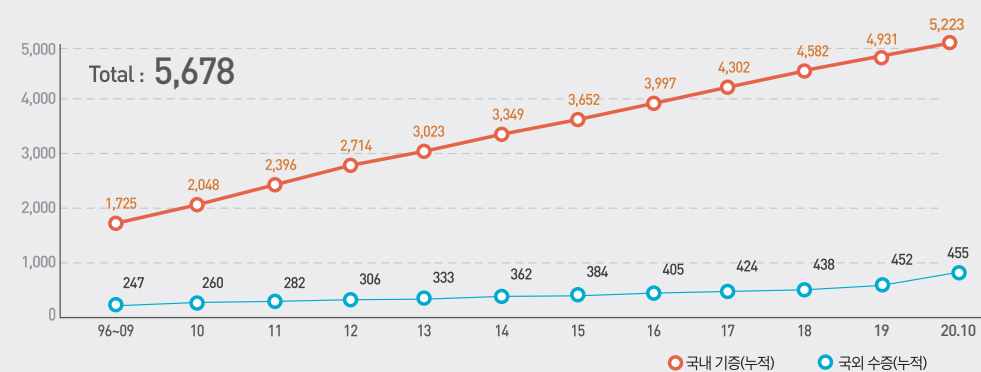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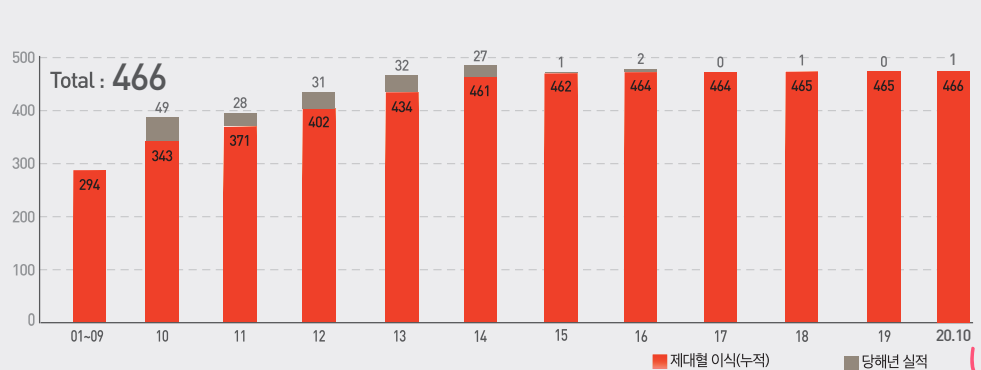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단위 : 명)



기증 제대혈 이식 현황

(단위 : 명)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에서는

'징검다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아직 '징검다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번 가입해 보세요! 새 생명의 기쁜 나눔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이야기의 장이 되 줄 것입니다! '징검다리'는 기증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지역별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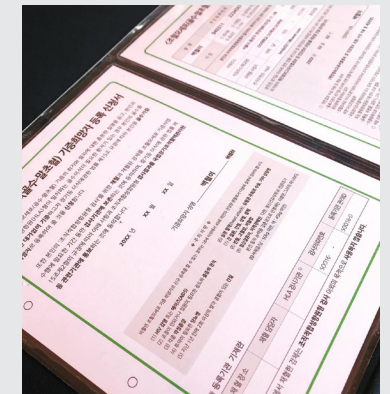
페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1605998819677212/>) "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을 통해 기증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개설되어 있으며, 가입 문의는 아래의 각 지역 총무 혹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연락주세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 안내

매월(3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공지는 페이스북 그룹(징검다리 - 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과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경기 총무 박철희 010-2620-0079
- ▶대전.충청 총무 임재영 010-9421-5936
- ▶부산.울산.경남 총무 이호영 010-8889-5723



Like Comment Share

Write a comment...

[illegible][illegible]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이후 우리 협회를 통해 실제로 기증하여 주신 분들의 성함입니다.(1996 ~ 2020. 10.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 하는 것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Q 조혈모세포를 보통 얼마큼 기증하는지, 그리고 기증 후 회복에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채집하는 혈액의 양은 양 250mL~300mL 정도로 환자와 기증자의 체중에 따라 기증 당일에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직후, 병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큰 어려움 없이 컨디션이 회복됩니다. 또한 기증 다음 날 퇴원하며, 학업 혹은 업무에 바로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할 때, 내가 성인이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보호자의 동의는 강제사항은 아니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증연락을 받은 후, 본인이 성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기증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연히 기증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혹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말씀 안하시는 경우 등이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기증 일정을 확정하고 난 후, 뒤늦게 가족들의 심한 반대로 인해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이식조정 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향후 치료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주십사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때의 입원기간과 입원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입원 병원이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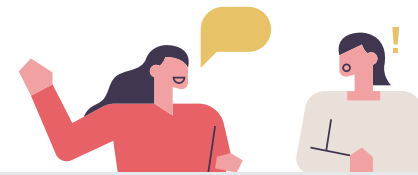
A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입원은 일반적으로 2박 3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혈모세포 기증이 위험하고 어려운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2박 3일간의 입원은 기증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기증 직후 컨디션을 확인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입원 일정에 조율이 필요한 경우,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상담하시면 사전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Q 양 팔을 이용해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는 경우, 헌혈할 때처럼 쇠바늘을 이용하나요?

A 이는 채취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릅니다. 양 팔 모두 헌혈할 때와 같은 쇠바늘을 삽입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한쪽 팔은 쇠바늘을 삽입하고, 다른 한쪽 팔은 실리콘 재질의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양 팔 모두 실리콘 재질의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과 골수 기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조혈모세포 기증과 골수 기증은 동일하며, 골수를 조혈모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혈모세포(골수)를 채집하는 부위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는데요. 말초혈액에서 채집하면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후장골릉(엉덩이뼈)에서 채집하면 골수 기증, 제대혈에서 채집하면 제대혈 기증으로 부릅니다.

**Q 직장인입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휴가는 언제, 몇 번씩 써야 할까요?**

A 기증 절차 중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건강검진과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2박 3일의 입원에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진행한다든지 토-일-월 혹은 금-토-일 등의 주말에 입원할 경우, 해당하는 평일에만 휴가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입원 첫 날은 퇴근 후 오후 혹은 저녁 시간대에도 입원수속이 가능하며, 퇴원도 이른 오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원 당일 바로 사무실에 복귀하는 일정이라면 온전한 휴가는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이 또한 주말에 입원하는 경우라면, 휴가 사용이 없이도 충분히 조혈모세포 기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증 3~4일 전부터 매일 진행되는 조혈모세포성장인자주사(G-CSF주사) 투여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15분 내외로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장과 거리가 있는 병원의 경우, 퇴근 시간대에 맞추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휴가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입원 시, 유급휴가 혹은 출석인정(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A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을 위해 해당 학과의 교수님과 협의가 이루어지며,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 또는 공가처리를 위해 해당부서 부서장 또는 인사과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군부대의 경우 역시 부대장과의 협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기증자가 속해 있는 모든 해당기관과의 협의 시, 필요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권고사항으로서 상급자 또는 결재권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협조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Q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조정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로가 선의에 의한 마음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이식 받았지만 만일의 경우, 환자는 재발로 인해 재기증이 필요해 요구하거나 반대로 기증자는 환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등 서로간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는 장기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엄격히 차단하여 장기매매의 가능성을 소멸하고자 비밀유지 조항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기증자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항입니다.

Q 양 팔이 아닌 중심정맥관을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말초혈 조혈모세포기증은 양 팔의 혈관을 통해 채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말초혈관을 통해 채집하기에 혈관이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하게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중심정맥관 삽입은 크게 경정맥, 쇄골하정맥, 대퇴부정맥 등 이 3가지 부위 중 한 곳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부위에 삽입을 하더라도 0.5mm~1cm 정도 절개하여 관을 삽입하며, 이때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소마취를 진행합니다. 양 팔의 말초혈관을 통해 조혈모세포를 채집하는 것에 비해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채집할 때에는 채집부위의 따끔거림과 이물감, 통증 등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4~6시간의 채집시간동안 양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세 변화가 쉽다는 점은 중심정맥관 삽입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의 큰 장점입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기증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식조정기관에서 지불합니다. 이는 이식환자가 부담하신 비용으로 상세유전자형 검사비, 건강검진, G-CSF주사제, 입·퇴원비, 입원 시 물품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후, 일치 환자는 등록된 지역에서만 찾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진행한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각지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혈액암 환자가 발생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일치 환자를 찾습니다. 특히 KMDP에서는 해외 환자에게 국내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송하기도 하며, 반대로 국내 환자에게 해외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Q 항우울제, 수면제 등 정신과약을 복용중인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한가요?

A 단순한 수면장애로 인해 복용하는 경우, 기증(희망등록)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라면 상세한 문진을 통해 진행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발생 횟수, 증상, 약물 효과 등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치료중인 병원의 전문의 소견을 종합하여 기증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Q 헌혈의 경우, 거주 지역 제한이나 해외체류 경험에 따라 불가능하기도 하는데 조혈모세포 기증은 이런 제한이 있나요?

A 이는 채취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릅니다. 양 팔 모두 헌혈할 때와 같은 쇠바늘을 삽입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한쪽 팔은 쇠바늘을 삽입하고, 다른 한쪽 팔은 실리콘 재질의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양 팔 모두 실리콘 재질의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흡연 여부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 시, 흡연은 금기사항이 아니지만 양질의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기증 일정이 가까워지면 금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일 경우, 흡연으로 인해 더욱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 될 수 있는 한 금연하시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Q 평생 동안 조혈모세포 기증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두 번 이상 가능한지, 혹시 타인에게 기증하고 난 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은 여러 번 가능합니다. KMDP의 규정상 골수 기증의 경우, 최초 기증 후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두 번째 기증 후에는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 최초 기증 후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고, 두 번째 기증 후에는 1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규정은 비혈연간의 생면부지 타인의 경에 해당하며, 혈연간 기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기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재기증이 가능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혈액암 환우를 응원해 주세요

조혈암 인형 만들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캐릭터 조혈암, 적혈이, 백혈이, 소판이를 인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인형은 소아암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
참여 후원금 : 1세트당 3만원
인형을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중심정맥관 외부를 연결해 주는 히크만 카테터를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히크만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주머니는 혈액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
참여 후원금 : 1세트당 1만원
주머니를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마스크 만들기

힘든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마스크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
참여 후원금 : 1세트당 1만원
마스크를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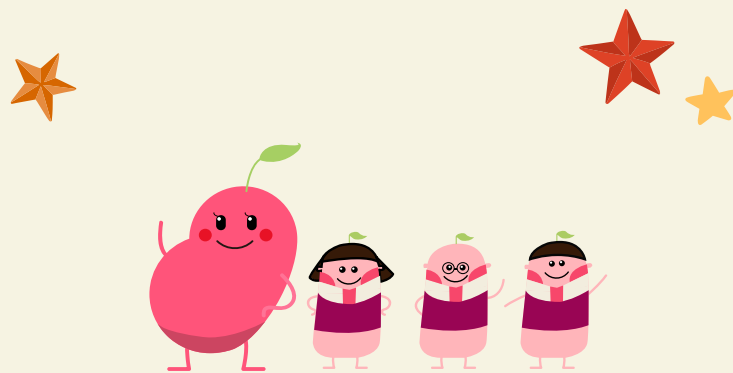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분들

2020년 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개인정보 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9. 11. 1. ~ '20. 10. 31)

1. 기업후원 회원



2. 개인후원 회원

구분	회원명 (가나다 순)	구분	회원명(가나다순)	
CMS 정기 후원 회원	강동우, 강득록, 강슬기, 강영경, 강용래, 강원구, 강종수, 강행경, 고영일, 고유리, 고윤석, 고해정, 고현아, 고현중, 공미아, 공성진, 권영태, 권명순, 권정도, 권정미, 김경민, 김경선, 김경심, 김규현, 김대중, 김도하, 김동휘, 김미란, 김미소, 김민희, 김민지, 김민호, 김병국, 김병환, 김보현, 김상철, 김선정, 김성중, 김세진, 김수동, 김순영, 김신영, 김영재, 김예래, 김유성, 김은경,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김은진, 김은혜, 김인숙, 김일수, 김재근, 김재영, 김재형, 김정수, 김중근, 김중명, 김주성,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지훈, 김진관, 강동우, 강득록, 강슬기, 강영경, 강용래, 강원구, 강종수, 강행경, 고영일, 고유리, 고윤석, 고해정, 고현아, 고현중, 공미아, 공성진, 권영태, 권명순, 권정도, 권정미, 김경민, 김경선, 김경심, 김규현, 김대중, 김도하, 김동휘, 김미란, 김미소, 김민희, 김민지, 김민호, 김병국, 김병주, 김병환, 김보현, 김상철, 김선정, 김성중, 김세진, 김수동, 김순영, 김신영, 김영재, 김예래, 김유성, 김은경,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김은진, 김은혜, 김인숙, 김일수, 김재근, 김재영, 김재형, 김정수, 김중근, 김중명, 김주성,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지훈, 김진관, 강동우, 김종만, 김태현, 김하린, 김해기, 김현택, 김현업, 김혜민, 김혜정, 김혜진, 김화원, 김 희, 노연지, 노영경, 노영림, 노현관, 문병영, 문정숙, 문준호, 문형곤, 민병욱, 민주영, 박금란, 박덕용, 박미라, 박봉태, 박상실, 박상영, 박상현, 박세림, 박세용, 박소라, 박수경, 박승노, 박시원, 박안나, 박영재, 박윤희, 박이용, 박인태, 박진술, 박찬영, 박천우, 박철희, 박준경, 박대진, 박희철, 박형민, 박혜정, 방국희, 배원선, 배인규, 배소연, 사공자, 서동진, 서태호, 설화순, 성주현, 성진기, 손소원, 손진화, 송병덕, 송지섭, 송진술, 송철호, 신기혁, 신명준, 신미란, 신진경, 안규현, 안다슬, 안효섭, 양 컨, 오덕교, 오상호, 오수현, 오지연, 오홍범, 우영택, 원용식, 원형식, 유미나, 유변림, 유수진, 유승수, 유영철, 유현철, 육전수, 윤미정, 윤재성, 윤지용, 윤현미, 음공관, 이경숙, 이경희, 이금주, 이나연, 이동호, 이동훈, 이미란, 이민옥, 이민주, 이민호, 이상기, 이상민, 이상현, 이상환, 이서현, 이석영, 이수경, 이수나, 이수현, 이연옥, 이영재, 이영호, 이윤섭, 이윤수, 이우진, 이은지, 이은진, 이은화, 이재석, 이재수, 이재호, 이정호, 이자연, 이자영, 이지혜, 이창휘, 이태찬, 이하슬린, 이하승, 이한나, 임보나, 임선영, 임성빈, 임재영, 임한성, 장경호, 장효식, 전성대, 정계숙, 정구현, 정기업, 정기운, 정달영, 정성미, 정성훈, 정승식, 정승희, 정영권, 정윤숙, 정은장,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진오, 정희선, 조규섭, 조희선, 조규섭	CMS 정기 후원 회원	조성빈, 조용희, 조정희, 조하승, 조하민, 조종채, 주영애, 차선옥, 차중철, 차형덕, 채은식, 최강민, 최관호, 최도래, 최문식, 최미월, 최사빈, 최승관, 최승현, 최언화, 최용혁, 최유니, 최윤철, 최은진, 최철식, 추세란, 하세린, 하종률, 한송희, 한순옥, 한연숙, 한영숙, 한원배, 한일호, 함경지, 함정은, 허란경, 허미경, 현정희, 현 진, 호인걸, 홍경석, 홍민지, 홍유선, 홍지은, 홍혜경, 황대만, 황왕연, 황 용, 황원철, 황유성, 황은선, 황정환, 황지원, 그린피앤티, 뉴우성빌딩센터, 도훈파파, 엠앤에프코리아(주), 오피스퀵앤화물,	
	CMS 일시 후원 회원	심진희, 원지선, 이혜리, 임선묵, 홍정인		
	CMS 정기 후원 회원	계좌이체 정기 후원 회원	김민정, 김봉규, 김상우, 김소라, 김수정, 김정현, 김진우, 노규동, 박재희, 백승진, 송종필, 신용호, 신용환, 안진혁, 양수진, 양철호, 어해숙, 엄수현, 오현숙, 이종무, 이현세, 임명희, 장영석, 전도석, 정영숙, 조동현, 차종주, 최상철, 최상필, 최연정, 최우석, 하한일, 한보석, 한성성, 한성호, 한윤탁	
		계좌이체 일시 후원 회원	MATTHEWSCHULMAN, 강혜미, 고은지, 김동현, 김미화, 김범수, 김선아, 김재근, 나민화, 류승은, 박민주, 박석환, 박수아, 박영선, 박주형, 박홍민, 배상근, 백성경, 서희경, 손성문, 송혜원, 심인섭, 안선지, 오동한, 유민준, 윤고은, 이광선, 이상희, 이상수, 이상화, 이은주, 이재리, 이재원, 이재은, 이정은, 이종찬, 이진미, 임지원, 임지윤, 장소라, 장태기, 정미숙, 정미연, 정현주, 조영운, 최광재, 최수정, 최시연, 최혜원, 홍성민, 황영준, 황정자, 좋은나무교회(최은숙)	
CMS 정기 후원 회원	지로 후원 회원	노분남, 류길환, 박무성, 배상일, 배영란, 손영순, 송영훈, 엄상혁, 유상재, 윤미라, 윤재경, 윤정선, 이대우, 이재혁, 이현철, 임충성, 정명진, 정은경, 조세연, 조정일, 조한익, 하은혜		
	해피빈 후원 회원	유원영		

한국조형물포세모은행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에 의거 “공익성자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및 혈액암 환우 지원을 위해 후원으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어 주심
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후원해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1회 이상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 (지로회원의 경우 12월 27일까지)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출해주신 후원회원
- 일시 후원 등으로 후원자 정보를 협회로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37-5533, 안내 3 (기증증진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입력)
- ② 개별 기부금영수증 발송 요청 (2020년 1월부터 일괄 발송)
- ③ 문의전화 : 02-737-5533, 안내 3 (기증증진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후원회원 가입하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홈페이지 접속

www.kmdp.or.kr → 나누는 기쁨 → 후원신청 → CMS 정기 후원회원 신청하기

* 정기후원 뿐 아니라 일시후원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 문자 후원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바로가기



QR코드 바로가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혈액암 환자 지원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www.kmdp.or.kr > 나누는 기쁨 > 후원신청 (정기 후원 혹은 일시 후원 선택 가능)
문의 02-737-5533, 안내 3 (기증증진팀 후원담당자)

개인정보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꼭 알려주세요!

기증희망등록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HLA)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꼭 변경해 주세요. (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자만 가능)

①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 www.kmdp.or.kr 접속 → 개인정보변경 신청 클릭 → 변경내용 기재 → 확인

② 전화로 변경하기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 112)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백혈병 및 혈액질환 환자들은 조혈기능 저하, 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수혈이 꼭 필요합니다.

기부해주신 헌혈증은 지원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분들께 전달드립니다.

헌혈증 기부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 114)

보내실 곳 :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앞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본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경험, 환자 투병기, 조혈모세포 이식 및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교양, 사회교육, 수필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의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수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kmdp.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kmdp0311>



인스타그램
<http://www.facebook.com/kmdp0311r>



페이스북
http://www.instagram.com/kmdp_official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원하신다면

① 신청자격 : 나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남, 여

② 신청장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동자동)

수도권 지하철 1,4,공한,경의중앙선 서울역 12번 출구

☎ (02) 737-5533 (안내 2, 기증증진팀)

③ 접수시간 : 개인인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

단체인 경우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출장신청)

※ 방문 시 사전에 협회로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낀준 기증자님의 후기 보기



새 생명의 기쁨을

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가득 싣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중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싣고 오늘도 날아갑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